

(제11회 은정장학금 수여식)

인사말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2002년 월암당 정대 큰스님께서 불교학 저변과 인재 불사의 크나큰 원력으로 설립하신 장학법인입니다.

은정재단은 설립 이래 매년 학술연구단체 불교활동단체, 학자와 학생,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학술연구 및 활동지원금과 장학금, 생활격려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스님께서 살아생전 ‘사람’의 소중함을 강조하셨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큰스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가르침이 바로 은정재단의 10년을 있게 한 주춧돌이었습니다.

튼튼한 주춧돌 아래 칠십여 곳의 단체와 일 천여명의 인재들에게 15억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고, 불교문화 진흥과 불자인재 양성을 위해 2009년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라는 전국 규모의 대회도 불교계 최초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2천여 명의 참여로 시작한 경시대회는 올해 확대·개편되어 어린이, 청소년, 군장병, 일반인들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되었습니다. ‘나란다 축제’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행사는 무려 1만 여명의 전국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은정재단은 장학사업 외에도 불교문화 창달과 불자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며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도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미래의 불사를 내 일처럼 우선하여 물심양면으로 진력을 다 해주신 장학후원회 고문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란다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은정장학금 수여식과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원장 현응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 그리고 동국대 김희욱 총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은정학술상 수상자를 비롯한 장학금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나란다 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13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